

오피니언

금남로에서

신항락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 가운데 특별히 납부하는, 말 그대로 특별소비세라는 게 있다. 지난 2008년 개별소비세로 명칭이 바뀐 이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재화와 용역에 특정 세율을 선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이 땅바닥에 우유를 쏟아 부었다. 생산량이 급증해 우유 파동이 예견되는데도 여전히 특수세라는 자물쇠로 수효를 차단했으니 '소도 못을 알'이었던 것이다.

무상급식에 담긴 중요한 의미

고 있는 것도 미래는 뒷전인 채 현실에 안주한 농정당국의 책임이 크다. 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겠다고 지난 17년 동안 116조원을 쏟아부었지만 농가 빚은 오히려 3배로 늘었다.

인 140만에 이를 것이라 전망이다. 쌀값도 폭락하고 있다. 80kg 한 가마에 12만 9928원으로 심리적 저지선이었던 13만원대가 무너졌다.

의 부가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이 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거나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은 학생들의 결식을 막고, 고른 영양 섭취 등 사회보장제도의 성격이 강하다.

도 어린이들부터 쌀 맛을 길들여야 성장해서도 쌀을 지킬 수 있다는 미래지향적 신념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해 나갔다. 우리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 지난 80년대 중반부터 학교급식 실시 분위기가 팽배했던 이유로 쌀을 지키기 위한 일환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쌀 맛' 길들여야 쌀 지켜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에 필요한 예산은 2조원대로 추산되는데 반해 현 정부는 부자들에게 무려 100조원을 감세해줬다. 국민들의 65% 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에 2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우유 파동에 특수세라니

이 특별소비세는 지난 1985년 우유 파동과 관련하여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우유 가공 및 첨가제에는 우유 소비 억제 차원에서 특수세를 적용했다.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에 우유를 첨가할 경우 세금을 더 내도록 한 것이다.

기 고



최희동

최근 민주당은 정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했다. 새 지도부는 진보를 기치로 차기 정권을 되찾아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얼굴만 바꾼다고 해서 정권을 되찾을 수 없다.

플랜으로 선언하고는 하루아침에 구체적인 실천대안의 제시도 없이 진보를 내세우다보니 '무늬만 진보'인 정당으로 비쳐는 것이며, 바라보는 국민들 또한 민주당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기 고



윤기봉

사람이 타인을 만나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는 마음이 아닐까. 그게 순조롭지 않을 때 마음에 병이 든다. 그중 대표적인 게 울화병이다.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행정조직문화도 과거보다는 더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시장과의 대화를 원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시장과의 대화 신청' 코너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일자가 답변된다.

민주당에 '민주'는 있는가?

본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이 좋아서 아니라 한나라당이 싫어서라든가, 아니면 MB정권의 실정 때문이라고 답을 했다. 그런데도 자기도취와 안이한 대처로 바로 민심의 회초리를 맛보아야 했다.

원인 주인이라면서든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당원이 중심이 되어야 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 사실상 위원장의 선출부터가 중앙당에서 결정되고, 그 위원장은 대의원을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채우는 비민주가 난무한다.

소통은 광주발전의 원동력

이해하고, 신뢰 있는 기관으로부터 신속히 그 해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가능했을 때 소통의 안정성과 실효성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광주시의 입장에서 보면 개인민원을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제도 개선사항과 주요정책사항 등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 좋다. 또, 시민의 입장에서 스스로 민원해결은 물론, 시장에 참여하는 자금심과 보람을 갖게 하는 등 실질적인 행정참여의 기회가 보장돼 있다.

시 설

전남 산단 조성 무더기 '좌초' 대책 없는가

전남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산업단지 구축 사업이 곳곳에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근래 들어 경기 침체와 시행사들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사업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돼 좌초됐고 해남 화원산업단지 역시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산단 조성 계획이 좌초되고 있지만 지역 정치권과 정부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산단단지 조성은 지역의 미래를 담보할 최고의 성장동력이라는 점에서 최대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지자체 공무원 '모럴 해저드' 해도 너무한다

광주·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해당 자치구 금고은행의 스폰서를 받아 해외 공짜 여행을 다녀오다가 하면 지역축제 뒤끝에 여대의 헬세를 들어 공무원 포상여행 잔치를 벌이는 등 지자체의 '모럴 해저드' 현상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썩이다. 이 같은 행태는 이들 지자체가 최소한의 공직 윤리의식조차 갖추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다. 재정자립도는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엉망이면서 국민의 피눈물인 세금을 뒤흔머니 돈 쓰듯 광풍 쓰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간도 못해서 하는 말이다.

無等鼓

힌두교의 최고신 시바(Shiva)는 목욕을 하는 아내 파르바티(Parvati)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곤 했다. 시바의 그 같은 버릇을 무척 싫어했던 파르바티는 어느 날 몸을 문질러서 나온 때에 기름과 연고를 섞어 남자의 형상을 만든 뒤 갠지스강 물을 끼얹어 생명을 불어넣었다.

(Ganesha)는 이렇게 탄생했다. 가네사는 어금니가 하나인 코끼리 머리에 누런 살갗, 네 개의 팔, 작은 키에 울렁이배를 가진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용모는 다소 기이하지만, 지혜와 사리분별의 신이자 장애물을 제거하는 신으로 통하는 가네사에 대한 인도인의 사랑은 그야말로 각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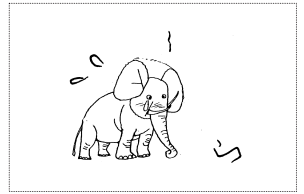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광주시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도 환영합니다.

인터넷 음란 동영상 예방 모니터 요원 의무화해야
야구를 좋아하는 아들을 위해 포털사이트에 '야구응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다 충격적인 장면을 봤다. '누드응원', '페티시응원' 등 낯뜨거운 음란 동영상이 마구 떠오르는 게 아닌가.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